

# '칼잡이'의 변신



| 김상우 / YTN 차장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칼잡이’가 ‘칼’만 쓰며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위기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제** 집안에는 ‘칼잡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식당 주방장이나 조폭 대원은 아닙니다. 이른바 머리를 깨고 허리 디스크를 깨는 그런 ‘칼잡이’입니다. 이 ‘칼잡이’는 현재 40대 신경외과 전문의로, 만약 조폭대원들이 말하는 ‘칼잡이’로 따진다면 ‘칼잡이’ 수술경력이 화려합니다. 그에게 ‘칼을 맞고’ 싶어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그는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의 머리 또는 디스크 환자들을 많이 ‘칼질’ 해왔습니다. 이 ‘칼잡이’는 전문의를 따기 위해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등 이래저래 10년 넘게 시어머니들이 첩첩산중인 의료계 바닥에서 그야말로 눈산훈련소에서 원산폭격 기합받고 진흙탕속에서 뺨뺨 기듯이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성실히 간 탓인지 그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명성있는 ‘칼잡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기 전까지 그는 병원에서 집에 못돌아오기 일쑤였고, 휴일에도 수술 때문에 밥먹다가 불려나

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느닷없이 ‘칼잡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칼잡이’가 수십년간 ‘칼’을 갈아온 자신의 ‘칼’을 놓겠다는 것도 놀랐지만, 이 ‘칼잡이’의 변신선언에 더 놀랐습니다. 그는 특하면 ‘칼’을 잘 썼니 못 썼니 하며 또 다른 칼을 갖고 덤비는 환자나 가족들을 주변에서 보면 더 이상 ‘칼’을 갖고 밥벌이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동료 의사들과 비교해 보면 힘들기만 하고 매일 칼과 피만 보고 특히 돈도 안되고, 존경하는 분위기도 없고 그야말로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럴바에야 대접받으면서 돈 버는 곳을 택하겠다고며 비만 클리닉 개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몇 개월 뒤면 이 유능한 ‘칼잡이’는 ‘비만잡이’로 변신합니다. 지금 그는 이 변신을 위해 또 다른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기 위해 갈았던 그 칼과는 분명 다른 칼을 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 ‘칼’은 그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갈았던 수련의 때 그 칼과는 다른 ‘돈벌이 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의료환경은 이렇게라도 변신을 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 이런 ‘칼잡이’들의 변신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중소병원들은 이른바 3D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과 -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 폐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또 수술실에는 ‘칼잡이’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환자들이 옮겨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집안 신경외과 의사를 포함해 이들의 변신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할 만한 확실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들 역시 ‘기자정신’을 버리며 변신하는 경우가 주위에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진짜 ‘칼잡이’가 없으면 엉터리 ‘칼잡이’가 분명 설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 듯, 칼잡이는 칼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의 따끔한 말을 차선의 정답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말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제가 몸담은 언론계에도 던지는 말입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도 정작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칼잡이’가 ‘칼’만 쓰며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위기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PPFK

